현 장 시 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일까?

이 신 선
서귀포YWCA사무총장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받은 지 16년, 평화의 개념이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일상으로 평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 여전히 지역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는 제주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극단이 아닌 이해와 양보, 배려의 가치 제고가 절실하다. 제주도민의 평화감수성을 묻는다면 얼마나 될까? 그리 높지 않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서귀포YWCA에서도 평화 아카데미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도민들은 평화에 대한 의식수준은 높아졌지만 고정관념이 여전한걸 보면 감수성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올해로 20년을 맞는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 제3기 국가행동 계획을 보더라도 그렇다. 제목만 보면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지점이 있다. 결의안 1325의 배경은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 르완다 학살처럼 분쟁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국가나 분쟁당사자에 의해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1325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해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채택한 중요한 법적, 정치적 틀로써 분쟁을 해결, 인도주의적 계획, 평화유지군활동, 분쟁 이후 재건 및 거버넌스에 여성의 참여 확대와 성인지적관점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의제 중 5번째 성평등(Gender equality)의제에 해당되는 1325의 내용은 첫째, 참여(Participation)로 평화협정 및 평화활동과 분쟁의 예방, 관리, 해결에 여성의 참여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성주류화(Gender Perspective)로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활동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및 통합하는 것이다.

셋째, 보호(Protection)로 분쟁지역 성폭력 및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 및 여아를 보호하는 것이다.

넷째, 예방(Prevention)으로 여성의 권리 및 책임성을 향상하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재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행점검이 있다. 결의안 채택 후 유엔은 회원국들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 결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권고했고, 한국을 포함한 총 84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고 있다.

여성문제, 국제평화, 전통적인 안보, 3개 의제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린 '획기적인' 결의안으로 1325는 평가받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일반 시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주변 지인들에게 1325에 대해 물었다. 들어본 적이 있는지? 10명중 2명은 들어봤다고 했고, 2명중 그 내용을 아는지에 대해서는 전부 모른다고 했다.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2021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민들이 제주평화의 개념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제주형 평화교육이 개발되고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제주평화연구원, '세계 평화의 섬' 평화실천사업 2.0에서 발표한 것처럼 평화주간을 지정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도민이 함께 한다면 평화감수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주평화를 위한 작은 시작이 오래 지속돼 큰 평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사설

앞당긴 道 인사, 원 지사 사퇴 빨라지나

대권에 도전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퇴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오는 7월 2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매년 7월말이나 8월 중에 이뤄졌던 하반기 인사가 한달 가량 빨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원 지사의 사퇴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도는 9일 2021년 하반기 인사 운영방향 및 일정을 전격 공개했다. 인사 일정을 보면 이날부터 11일까지 희망보직 접수를 시작으로 10일 5급 승진심사 인원 공개, 17일에는 5급 승진 의결자가 발표된다. 이어 24일에는 5급을 제외한 승진심사 인원 공개, 7월 1일 인사예고 후 2일 임용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별도의 조직개편 반영사항이 없어 예년보다 인사 시기가 빨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원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인사 시기를 앞당겼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다른 유력 후보에 비해 열세인 원 지사로서는 '지사직 사퇴'란 배수진을 치고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원 지사의 사퇴 시점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7월 12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바로 지사직을 사직해야 한다.

원 지사가 사퇴할 경우 도백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사 공석시 업무를 대행할 행정부지사마저 6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또 원 지사가 사퇴하면 정무부지사도 동반 사퇴하게 된다. 제주도정의 '빅3'가 사직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해 도정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좌남수 의장도 9일 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공직사회는 비상"이라며 도정 공백을 걱정하고 나섰다. 제주도정이 현안 해결은 물론 대선 공약 발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큰 일이다.

본격 피서철 방역·폭염에 '초비상 대처'를

제주가 본격 피서철을 맞아 코로나19 방역과 폭염, 각종 사고를 대비한 안전관리에 '비상'이다. 올해는 폭염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이동제한 후유증으로 피서객 폭증까지 예상돼 코로나19와 안전사고 모두를 예방해야 할 어려운 피서 시즌이다. 각급 행정기관이 꼼꼼하면서도 전면적인 '비상대책'에 소홀해선 결코 안된다.

여름 기상은 초기 강수 증가에다 작년보다 많은 폭염일수,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상태다. 그만큼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대책이 절실해졌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서객의 제주행은 예상을 훨씬 넘을 태세다. 피서객 폭주에 방역 비상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각급 기관이 순발력있는 여름철 안전대책을 펼쳐야 할 이유다. 이미 행정시와 도소방본부, 도교육청 등이 폭염 종합대책,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등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각종 안전사고가 예고없이, 의외의 장소에서 돌발하면서 피해를 키운다는 점이다. 예견된 사고는 사전 준비한 '메뉴얼'대로 대처하면 되지만 곳곳에 도사려 예상하지 못한 방역 '구멍'이나 안전사고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도내외 피서객 급증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방역 '구멍' 우려는 대표적이다. 실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시간 밤 10시로 제한되자 제주시 탑동광장으로 몰려들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취식·음주 현상을 들 수 있다. 오죽하면 제주시장이 광장 한시 폐쇄 지시까지 할 것인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방역·안전 우려 상황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

행정이 방역과 폭염을 동시 상대하는 버거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분야·지역별 철두철미한 대책 수립·실행에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열린마당

6월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

송 정 심
제주시 주민복지과

매년 6월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현충일,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를 주제로 범 국민적인 존경과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6월 한 달을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추모의 기간(6월 1일~10일)', '감사의 기간(6월 11일~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6월 21일~30일)'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호국·보훈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일 도내 보훈단체, 유족,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공원에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위훈을 기렸다.

또한 6월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생활이 곤란하거나 장기투병 중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방문해 위문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이룩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독립, 호국, 민주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새기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도 '애국'이라는 강한 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JDC 현안 과제 해결 협력 합의

도민 복리 증진·제주 발전 협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모처럼 제주의 현안과제 해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

도와 JDC는 10일 영상을 통해 오전 '2021년 상반기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현안 공유 및 협조사항을 논의한 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올해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인 만큼, 도와 JDC가 더욱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며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고대로기자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제기

○…차량 이동량 급증으로 등하교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제주시가 10일 현장점검을 실시.

외도초 지역은 최근 주택, 상가 등이 밀집하면서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민원이 꾸준히 제기.

이날 현장점검에 나선 안동우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논의를 통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서귀포시 5급 승진대상자 확정

○…서귀포시의 하반기 정기인사가 내달 2일(인사예고 7월 1일)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귀포시는 10일 사무관(5급) 승진심사 대상자 인원을 확정 발표.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승진 예정인원은 행정 5명, 사서·녹지·수산·간호·시설(일반토목)·시설(건축) 각 1명 등 총 11명.

시는 승진심사대상자들로부터 자기기술서를 제출받은 후, 오는 14~15일 다면평가 후 17일 승진의결자를 확정·발표할 예정. 백금탁기자

부 고

김인식(前 중등교사) 어머니 광산 김씨 화옥(향년 96세)께서 서기 2021년 6월 9일 16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6월 11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6월 12일(토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4층)
▶장 지: 표선면 성읍리 영주산 공원묘지

아 들 김인식 며느리 강금선
은식 안임생
규식 오정목
딸 김인선 사 위 박운영
인순 오시홍
인숙 장태준

※연락처: 김인식 010-2689-1276
김은식 010-3690-4355
김규식 010-5221-5763
김인선 010-7488-9382
김인순 010-3209-3110
김인숙 010-5644-518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태상(前 제주은행 부행장, 향년 7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6월 11일

부 인 박인화
아 들 문영건 며느리 고유정
딸 문경미 사 위 김남국

토지 급매 가격

1) 서귀포 범섬 최고 전망【특A+++】
건축허가 완료, 10필지 중 토지 150~220평 단, 8개 남음 ★평당 22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호근동 별장부지
범섬 조망 최고, 서호초 2분, 하나로마트 3분거리 총 681평 ★150만원★
4) 강정동 해안도로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최고, 호텔 및 고급 빌라 부지용, 총 2486평 ★190만원★
5) 월평동 해안도로 초근접
바다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카페부지 특 A+++ 총 1635평 ★85만원★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월평동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건축허가 150평, 180평, 380평, ★160만원★
010·5432·3543, 010·4627·354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D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0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